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힙합과 한국 대중음악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힙합 뮤지션 이영지, 비비, 지코, 박재범. (왼쪽부터)

한국에 힙합을 알린 주석, 힙합을 대중화시킨 타이거JK, 힙합의 스펙트럼과 대중성을 확장한 다이나믹 듀오. (왼쪽부터)

한국 힙합, K팝 세계화 이끄는 대중음악 주류로 도약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세계적인 팝 그룹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힙합을 기조로 한 음악이다.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에스파 같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스타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K팝에는 필수 요소처럼 랩이 들어간다.

2022년 12월 30일 블라세, 이영지, 던말릭, 허성현이 파이널 무대에 올라 이영지가 여성 래퍼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엠넷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11'의 참가자는 역대 최다인 3만 명에 달했다. 1월 15일 서울과 2월 4-25일 광주, 부산, 인천, 대구의 '쇼미더머니 11 콘서트' 예매 열기도 뜨거웠다. 힙합은 이처럼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 더 나아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K팝의 핵심 요소가 됐다.

30여 년 사이 한국 힙합은 소수 마니아의 언더그라운드 하위문화에서 젊은 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한국 대중음악 주류로 화려하게 부상하며 K팝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1970-1980년대 미국 뉴욕의 브롱스를 비롯한 빈민가 흑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디제잉과 랩, 비보이 댄스, 그라피티 미술, 빅 사이즈 패션 등을 아우르는 거리의 문화, 힙합(HIP HOP)이 태동했다. 흑인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힙합 음악은 비트가 빠른 리듬에 맞춰 일상의 삶과 욕망, 현실에 대한 분노, 백인 중심 사회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랩에 레코드 스크래치와 믹스, 브레이크 댄스가 가미된 것이다.

1973년 8월 11일 뉴욕 거리에서 열린 블록 파티 'Back to School Jam'에서 테네시볼과 믹서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고 음악을 믹스해 독특한 효과와 비트를 선보여 '힙합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DJ 콜러허크와 힙합 대중화에 기여한 슈거힐 켄, 런 디엠 씨를 비롯해 MC 해머, 아이스 큐브, 닥터 드레, 스눴 독, 투팍, 제이 지, 나스, 에미넴, 릴 웨인, 퍼렐 윌리엄스, 드레이크, 켄드릭 라마 같은 가수와 그룹의 음악이 사랑받으며 힙합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강타했다.

미국 힙합에 영향을 받은 한국 힙합은 대중음악계의 주류와 비주류 사이드에서 동시에 받아들였다. 1990년대 초중반 오버그라운드에선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가 랩을 도입한 노래를 들려주며 힙합을 선보였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과 듀스의 '굴레를 벗어라', H.O.T의 '전사의 후예'처럼 미국 힙합과 유사한 사운드의 음악도 등장했다. 이후 엽타운, 지누션, 드렁큰 타이거 같은 정통 힙합을 표방하는 팀들이 힙합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또한, 1995년 개국한 음악전문 케이블 TV 엠넷과 KMTV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방송하면서 일부 청소년이 생경한 힙합 음악에 관심을 갖

오버와 언더 경계 허물며 발전...BTS 등 세계적 아이돌도 힙합 차용
강렬한 저항 정서, 스타일에 MZ와 중장년 세대간 호불호 간극 여전

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초반 TV를 비롯한 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한 오버그라운드 힙합과 클럽 공연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약한 언더그라운드 힙합은 작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미국에서 태동한 힙합 음악은 인종적·계급적 차별에 대한 저항과 백인 주류 사회의 압제에 대한 분노, 그리고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를 분출했지만, 아이돌 그룹과 연예기획사가 주도한 오버그라운드 힙합은 저항과 분노가 거세된 단순한 패션, 댄스와 함께 대중의 눈길을 끌기 위한 음악적 스타일의 성격이 강했다.

랩은 댄스 음악의 장식품으로 활용되며 8마디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무늬만 힙합인 음악이 성행했다. 반면 언더그라운드 힙합은 미국 힙합에 담긴 저항적 정서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해 수용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은 힙합 음악을 통해 돈과 출세를 지상과제로 삼는 기성세대와 학벌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행태를 거침없이 공격했다.

한국 힙합은 이처럼 언더그라운드와 오버그라운드에서 동시에 받아들여 다른 문양과 성격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오버그라운드에선 빅뱅, 블랙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비롯한 많은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주조로 한 음악을 발표하며 국내에서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다. 타이거 JK, 윤미래, 리쌍, 에픽하이, 다이나믹 듀오, 지코, 제시, 박재범, 사이먼 도미닉, 창모, 비비, 이영지 등 인기 많은 힙합 스타도 배출됐고 아메바 컬처, 브랜뉴뮤직, AOMG 같은 힙합 레이블도 활성화했다. 언더그라운드 힙합 뮤지션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했다.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은 유튜브와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발표하며 힙합의 장르와 외연을 확대했다.

MTV의 'Yo! MTV Raps'가 미국에서 힙합을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2012년 시작돼 2022년까지 시즌11이 방송된 엠넷의 '쇼미더머니'는 적지 않은 논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힙합의 질적 도약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쇼미

더머니'는 일반인, 연예인, 아이돌 등 참가자가 다양한 데다 TV를 통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대거 출연해 힙합의 새로운 트렌드와 팬덤을 창출했다. '쇼미더머니'는 '고등래퍼' '언프리티 랩스타' 같은 프로그램을 등장시키며 힙합 인기를 확대 재생산했다.

언더그라운드 힙합은 저항적인 성격과 고유한 정체성을 견지한 데 그치지 않고 TV를 비롯한 미디어를 통해 대중성도 확보해 나갔고 주류 음악계에 선 문제 많은 현실과 사회에 대한 비판 같은 언더그라운드 힙합 요소를 적극 수용해 오버그라운드와 언더그라운드의 경계가 약화하며 한국 힙합은 발전을 거듭했다.

2010-2020년대 국내외 팬덤이 강한 아이돌 그룹이 힙합 음악으로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힙합의 세계화가 촉발됐다. 특히 아이돌 그룹이 선도하며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은 EDM과 발라드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혼용하고 랩을 비롯한 힙합 음악을 가미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에스파

등 아이돌 그룹은 힙합 곡으로 활동하거나 발표 음악에 힙합 요소를 강화해 세계적인 환호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 대중음악 주류로 K팝의 세계화를 이끄는 힙합에 대한 반응과 수용 양태는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상당수 중장년층은 "힙합이 노래나"라는 냉소를 보내거나 섹스, 욕설, 여성 혐오까지 포함된 랩을 두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외면한다. 일부 힙합 뮤지션의 문신과 범죄 행위, 대상을 공격하고 폄하하는 디스, 자신을 과시하는 플렉스와 스웨그에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중장년층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힙합에 절대적 지지를 보인다. 10-30대는 대한민국 현실과 자신들의 처지를 잘 대변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과 분노 그리고 욕망을 거침없이 표출하는 힙합 음악에 감정이입하며 열광한다.

2023년의 대한민국은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고령 인구와 1인 가구의 급증,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 역할 변화, 젊은 세대의 미래지향적 태도와 장노년층의 과거지향적 인식의 충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세대 갈등은 증폭되고 더 나아가 세대 상호 간의 혐오마저 횡행한다. 세대 갈등은 많은 부분에서 분출되고 있는데 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젊은 층과 중장년층은 서로의 문화 콘텐츠 향유는 고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세대 간의 문화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폄하도 일삼는다. 한국걸 그룹이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13세부터 39세까지 2,511명과 40대 이상 2,791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가요와 가수를 조사한 결과는 단적으로 세대 간의 문화 단절을 잘 보여준다. 30대 이하 젊은 층은 'Dynamite' 'Shut Down' 'Butter' '새빨'을 비롯한 K팝과 힙합, 그리고 방탄소년단, 아이유, 블랙핑크, 아이브, 지코 같은 아이돌과 힙합 가수를 선호하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사랑은 늘 도망가' '막걸리 한잔' '초혼'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트로트와 발라드, 그리고 임영웅, 장승경, 영탁, 송가인, 이찬원 등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힙합을 통해 미국 젊은이의 현실과 고뇌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10-30대가 열광하는 음악, 힙합을 알린 청소년과 청년의 문화, 생활, 그리고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힙합에 관심을 기울이면 젊은 층의 음악과 문화뿐만 아니라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MZ세대의 현실과 자의식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세대 간의 접점을 확대해 세대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한국 힙합을 대중화시켜 주류 음악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